

올림픽을 대비한 화훼선택과 전망

— 절화용 · 화단용 화훼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광 병 화

올림픽은 세계 체육인의 제전인 동시에 평화에 제전이요 인간미의 제전이기도 하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이 제전에 참가하여 지켜본다. 그뿐만 아니라 메스콤을 통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제전이기도 한다. '88년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이 제전을 가지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 세계 만방에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게 된다.

이때 우리 한민족은 금수강산을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고 꽃의 낙원을 만들어 한국을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깊게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장식용 꽃으로는 절화용과 화단식재용으로 구별해서 볼수 있는데 올림픽이 9월하순경에 있어 그 여파가 10월말까지 있을것을 예상하여 절화(꽃다발)로는 역시 종래에 널리 재배생산되어온 국화, 카네이션 및 장미가 뭐니뭐니해도 그 주요부를 차지할것이고 절화를 꾸밀때 보충 또는 혼용을 하여 품위를 더하게 하는 안개초가 많은 소비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된다.

절화용화훼

국화는 종래에 절화용으로 재배되어온 비교적 대륜형 겹꽃종을 택하기보다 생산관리가 쉽고 수송, 포장에 무리가 없으며 대중적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수명이 길며 현대적 미적 감각을 안겨다주는 스프레이 국화(Sprimum)를 보다 많이 생산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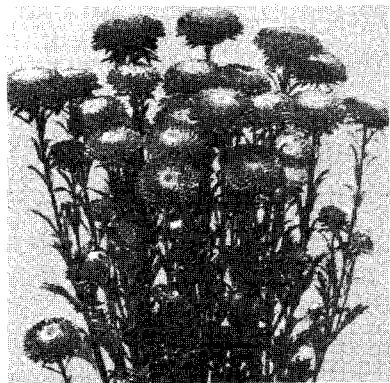
스프레이계통을 차광재배

중륜 절화용국화로서 종류와 생산이 다양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함으로 '아그로', '핑크 마블', '슈퍼 옐로', '귀부인' 등 치밀성이 있는 품종으로 계획적인 육성재배(차광재배)를 함으로서 9월하순경에 개화시킬수있는데 이들은 모두 가을국화로서 그대로 두면 10월하순경에 개화함으로 차광재배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지금 시중에는 가을이 아닌 때에 출하되는 '귀부인'같은 스프레이 국화가 있으나 좀더 화려한 꽃색같이 요망된다.

카네이션도 종래의 품종보다 지금 시중에 상당량이 이미 출회되고있는 스프레이형 카네이션, 예를들면 주홍색계 '엔젤' 품종

은 그 때가 되어도 상당한 각광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3년후는 아직 모르겠으나 현재도 이용되는 절화장미도 인기가 있을것이고 온실절화장미로서 세계적인 품종인 '소니아', '멜시데스', '카리나', '베린다' 등 장미를 권장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온대지방 국가로서는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계절에 더위에서 찬바람이 이는 가을이 급히 오게 되고 이때를 맞추어 질이 좋고 양산이 될수있으며 절화로서 싼값으로 생산될수 있는 꽃은 역시 절화용 과꽃(아스타)이다. 화단용 과꽃의 경우에도 말하겠지만



◇ 절화용 과꽃 ◇

진분홍 겹꽃 품종을 골라 키가 큰것을 포장에서 자연재배 하면 절화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꽃은 우리나라 북부지방 원산으로서 그간 외국에서 많은 육종이 이룩되어 품종이 대단하지만 우선 폰폰형꽃의 적색 또는 진분홍 겹꽃의 품종을 골라 조생~중생으로서 키가 큰것을 골라 포장에서 자연재배를 하면 올림픽을 전후하여 절화꽃수요에 많이 응할수있을것으로 믿어진다. 백색숙근 안개초는 현재도 거의 년중 생산, 출하되고 있어 이것은 올림픽을 전후해서 소비량이 급증할것에 대비하여 량산에 박차를 가하여야겠다.

실내장식용·국화,글라디올러스

이들이외에도 글라디올러스라든가 백합같은 구근절화로서 실내절화장식용으로 국화, 카네이션 및 장미에 이어 중요할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가격면에서 크게 대중성을 띠다기보다 특히 연회라든가 공용의 실내장식등에 이용될 전망으로 역시 주목해두어야 할 품목이다. 글라디올러스는 적색계인 '화이어 부란드'가 역시 옛부터 인기가있고 외국인을 의식해서 분홍색꽃의 '트라벨러'가 각광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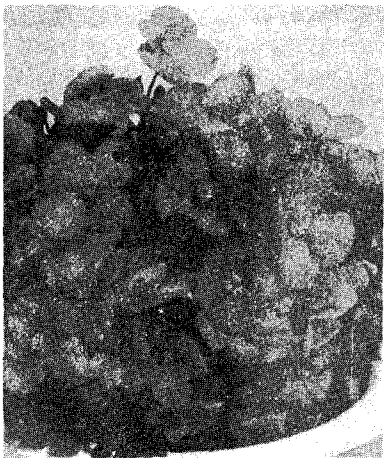
백합,인페르노루系, 백색유망

백합은 종래 백색 인기품목인

'조지아'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인페르노나' '체라브' 등으로 백색백합의 탈바꿈을 했으면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한편 요즘 점차 출하량이 늘고있는 유색백합도 관심사가 되겠지만 백합은 하여튼 올림픽 시기에는 글라디올러스와는 달리 개화기조정을 위한촉성재배를 시도해야하니 재배상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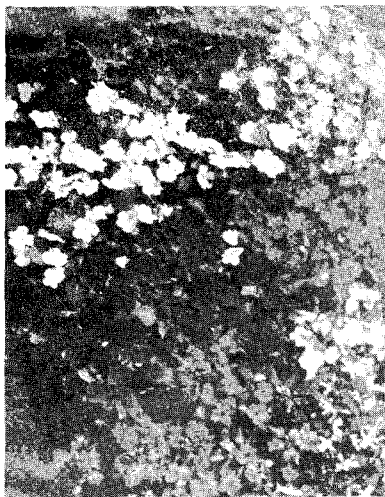
화단용화훼

화단용 꽃으로서는 9~10월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소 척박한곳은 과꽃(왜생~중생종)을 위시해서 다소 그들이 되는 가정이라든가 도시건물사이 화단등에는 꽃베고니아(센퍼후로렌스)라든가 아프리카 봉선화(임파리엔스)의 적색계가 좋겠고 이들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가식된 묘가 꽃시장에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물주기를 고려하고 재식조건이 쉬운곳이라면 매우 좋은 꽃이다. 자가채종된 과꽃은 꽃색은 일정치 않으나 채종량이 많고 반겹으로 퍼서 9월 한달은 우리주변을 장식할수있는 손쉬운 1년생초이기에 웬만한 곳이라면 종자를 직파하여(묘의 이



◇ 꽃 베고니아

다소 척박지나 도시건물 사이 화단에 잘 어울릴것으로 전망된다.



◇ 아프리카 봉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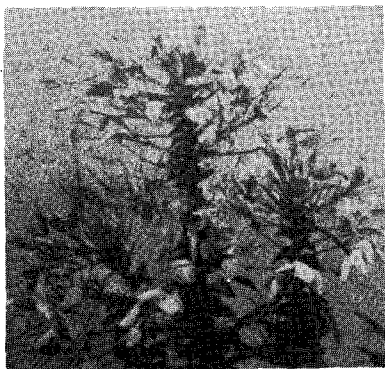
물주기가 쉬운곳은 재배가 쉬우며 주변을 쉽게 화단화 할수 있다.

식없이)재배하는것이 좋겠다.

도로변공지 · 시골은 코스모스

도로변의 공지라든가 시골촌락의 공지에서는 코스모스종자를 직파재배용으로 이곳저곳에 뿌려 놓으면 9월을 맞이하여 타국에서는 볼수없는 코스모스한국을 꾸밀수있다.

코리아메도 우리나라여름과 가을의 풍토에 매우 잘 견디는 1년생 초화로서 이식재배도 되지만 공원, 관공서, 학교, 공업단지의 화단꽃으로는 특히 올림픽의 시



◇ 코리아메

공원, 관공서, 학교, 공업단지의 화단꽃으로 장관을 이룰수 있는 분홍꽃이 될수 있다.

기를 전후하여 장관을 이룰수 있는 분홍색꽃이 될수있다. 코스모스같이 다소 키가 크다는 단점은 있지만 뽀뽀한 성질은 코스모스보다 일찍 꽃이 피서 가을 늦게까지 꽃이 있다.

경기장주변...칸나를 群植

속근화초로서 올림픽을 고려한다면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칸나를 상기시키는데 칸나는 소위 안줄기를 갖고있는 구근화초로서 여름장마에 잘 견디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어나는 꽃으로 가로 공원이나 비교적 넓은 공간의 화단화초로서 군식(모아심기)을 했을 때 더욱 장관이다. 올림픽경기장 주변의 화단조성용으로 매우 어울리는 화훼가 될수 있다.

주홍색 중생종 '아메리칸 렛트크로스'와 미색의 '유클카' 등 중생 품종이 가장 각광시 된다. 이들은 다만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봄의 재식기까지 뿌리를 하나하나 관사하여 겨울에 얼지않게 저장하였다가(습기있는 영상의 장소) 봄이되어 뿌리 나누기를 한 다음 일일히 개별적으로 화단에 심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마때 습한 토질에서나

건조할 때 가뭄이 심한곳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않고 병충해의 큰 피해없이 쉽게 재배되는 특징이 있어 대량식이 요구된다.

일반 가을국화(10월하순에 꽃핀다)와는 달리 보통종보다 20~30일 개화기가 빠른 국화가 시중에도 상당히 많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래 미국에서 일본을 통하여 수입한 콧손 맘이란 소류종 양국이다. 10월초에는 꽃이 만개하며 이때 식물키는 보통 소류 가을국화보다는 작으면서도 꽃이 무척 많이피는 성질이 있다. 일찍피는 까닭으로 추운계절에 꽃피는 종류와 달리 결실도 잘 되어 종자번식도 가능하고 처음에는 외국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봄에 뿌리면당년에 꽃이 피고 그 뿌리가 다년생으로 살아남아 해마다 같은 성질과 색의 꽃이 피게되며 포기를 나누어 번식한다. 종자를 자가 채종하여 심으면 형질이 퇴화하는 일이 많다. 콧손 맘은 로지화단뿐만 아니라 화분식을 하여(한화분에 3주정도 식재) 화분을 목적으로하는 곳에 배열, 장식하는 것도 좋겠다. 운동경기장의 실외와 실내에 자주, 노랑, 흰색 그리고 적색등 꽃색을 맞추어 색상균형을 잡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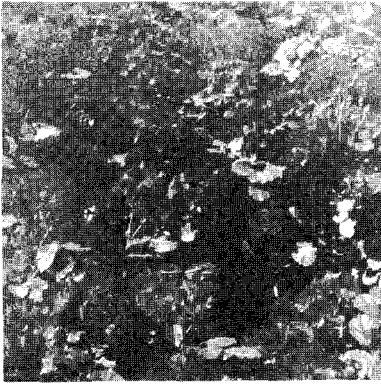
◇ 노지에 심은 콧손 맘국화

실내외에 자주·노랑·적색 등 꽃색을 맞추어 색상균형을 유지 할수 있는 소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요즈음 10월초에 시중에서 보면 양종인 콧손 맘을 일본식 재배법인 현애작을 만들어 국화의 옛 향취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출하되어 가로나 로타리의 길 중앙에 피라미트형 화분장식으로 입체화단을 꾸미는 일이 있는데 올림픽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건들이 계속 생산되고 또 이용되었으면 싶다.

올림픽을 위한 화목(꽃나무)의 대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 정원 또는 화단에

산색깔을 갖게 하려면 역시 거의 방치해 놓게되는 꽃나무로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피는 장미를 빼놓을 수 없다. 봄에 5월하순에서 6월초에 꽃이 한때 많이 피고 여름에는 다소 그 수가 감소하였다가 9월이 되면서 다시 꽃이 많이 피는 종류를 선별 식재해야겠다. 아직 야생의 형질을 갖고 있는 다화소형꽃인 소위 후로리반다계 장미는 성숙해도 키가 비교적 작고(1m미만) 별로 가지치기도 많이 필요하지 않



◇ 후로리반다게 장미

주위 및 병충해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가로변 및 직장, 공원 등의 반야생화로 재배가 가능하다.

으며 특히 겨울에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짙을 싸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건하여 병충해도 종래의 하이브리드 티계통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폭이다. 앞으로는 길거리 정원과 직장 및 공원의 화단조경용으로 이를 종래와 달리 모아심기 함으로써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거의 연속적인 반야생의 아릿다운 꽃(대개는 홑과 반겹의 소형꽃이 한가지에 수많이 핀다)이 피게 된다.

올림픽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다소 연구적인 화단에는 앞으로는 우리주위에 보다 이같은 후

로리반다게 장미를 보다 우수한 것으로 많이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접목 또는 삽목 번식으로 대량생산하여 이들을 널리 보급, 재식할 필요가 있는 화훼이다. 현재 적색계로 우수한 국내종은 '람피온'이라든가 '후렌삼' 등이 좋고 '베티 푸라이어'같은것을 최신 우수 품종으로 현재 장미라면 선진외국에서도 대량생산되는 것을 보면 후로리반다장미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차의 대량증식과 묘생산이 기대된다.

우리겨레의 꽃 무궁화는 한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단단없이 매일같이 피고지는 남다른 특징을 가진 키작은 나무(관목)이다. 오 전햇볕에 찬란하고 깨끗하게 활짝핀 무궁화는 거의 향기가 없어도 청초하기만 하다. 이맘때 피는 나무 꽃은 목백일홍(배롱나무) 외는 거의 없는데 무궁화만은 방방곡곡에 피어오른다. 산울타리용으로 공원과 뜰이 비교적 넓은 직장, 학교, 관공서 정원 등에 심어지지 않는곳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 근 백 품종에 가까운 무궁화를 발견할 수 있으나 백색단심꽃의 '아사달', 연보라색 단심꽃의 '새아침'은 모두 홑꽃으로서 보기 좋

은 우수품종이고 '본조이' 같이 자색단심 꽃으로 외국산 우수품종도 국내재배가 잘 된다. 과거 약 십수년 동안 우리 남한에서 겨울추위가 가장 심한 곳으로는 양평을 들수 있는데 거기에 심어놓은 무궁화는 겨울 동사로 나무의 부분적 고사가 발견되는 것이 거의 100%라 하니 겨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20°C 이상이 되는 곳 아니면 거의 동상이 없이 재배가 잘 되어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양지바른 토박한 땅보다 수분이 다소있는 기름진 땅에서 보다 잘 자란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 아니다. 구라파에서는 간혹 성숙한 무궁화가 눈에 띄는데 대개 모양을 내어서 원형 또는 각형등으로 가지치기를 엄격하게 하여 대단한 관리를 한다. 가지고 놀듯 예쁘게 다듬어 무궁화가 꽃피게하는 것을 볼때 적

어도 봄에 가지치기는 년 1~2회에 걸쳐 반드시하여 무궁화에 관심을 다소 주는 재배를 한다. 진딧물은 약이 좋기때문에 쉽게 구제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상 소개한 화훼류는 올림픽이 9월하순에 있을것을 대비하여 우리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을 특기해 보았지만 이 외에도 다소 출하와 재식이 고려될 수 있는 것들도 없지는 않다. 재배생산자, 판매상인 그리고 수요재식자들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다른 여러가지 화훼가 또한 많이 이용될 수 있을것은 물론이다. 특히 실내식물 예를 들면 관엽식물 등에도 품질 좋고 우리 환경에 맞으며 량산이 될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이 고려대상이 되어야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논의코저한다.